

수용여부 서명 요구에 지역정치권 “책임 떠넘기기” 반발

광주 구간경제조정 시작부터 삐걱

광주지역 도심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구간경제조정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광주시가 일반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후 제시하는 최종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동의 여부’에 서명부터 하라”는 광주시의 입장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이다”며 이 공문에 따른 회신 자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국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시는 “자치구간 경제조정 추진에 관한 의견” 공문을 발송

광주시, 국회의원들에 일방 공문

“협의도 없이...” 회신 거부 움직임

준비기획단 회의서도 갈등 노출

해 “경제조정준비기획단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시하는 최종안에 대한 수용(찬성) 여부?”이라고 묻은 뒤 ‘수용함’ ‘수용 어려움’으로 나눠 답변해 줄 것을 국회의원 서명을 포함해 요청했다. 공문을 통해 광주시는 “준비기획단에서 합리적인 개편안을 제시하더라도 정치권의 반대があれば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공문 발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광주시는 “준비기획단에서 합리적인 시민의

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면, 최종안이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이를 수용한다는 정치권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치권의 선행적 합의가 이뤄지면 자치구간 경제조정 최종안 채택을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해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경제조정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그동안 아무런 협의 과정도 없었고 최종안도 없는 상태에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경제조정은 행정 뿐 아니라 광주지역 국회의원 의석 8석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에 광주시의 공문에 답변을 아예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구간경제조정이 초

반부터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도 낳고 있다.

정치권의 반발은 이 공문 발송 전 열렸던 경제조정 준비기획단 회의에서도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기획단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치권과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정치권은 이 문제에서 빠져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조정 준비기획단에는 시의회 9명, 구의회 5명, 정당 6명, 학계 2명, 언론계 3명, 경제계 2명, 사회단체 6명, 연구원 1명, 광주시 7명, 시교육청 1명 등 4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한 위원은 “최종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국회의원들의 동의서부터 받는 과정에 준비단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면서 “다른 의견도 많았지만 ‘짜여진 각본’처럼 회의가 마무리되고 공문이 국회의원들에게 발송됐

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은 구간경제조정에 찬성한다. 이들 중 6명은 복구 다선거구를 동구에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의 복구 편입을 골자로 하는 구간경제조정2안(중폭)에 찬성하고 있다. 윤영덕(동남갑)·이병훈(동남을)·송갑석(서구을)·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이용빈(광산갑) 의원 등 6명이 이 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민행배(광산을) 의원은 ‘첨단구 신설’을 주장했고 양향자(서구을) 의원은 “구체적 방법은 다시 고민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편 구간경제조정은 주민공청회 등을 연 뒤 기초의회·광주시의회와 최종 검토과정을 거친 뒤 시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호남 동행’ 국회의원 10여명이 3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5개 구청장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광주지역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구청장들이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호남 끌어안기’ 박차

광주·전남 다시 찾은 김종인

기초단체장 정책협의 간담회

“노력과 진심, 행동으로 보여줄 것”

국민의힘이 광주·전남 기초단체장들까지 만나면서 ‘호남 끌어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원 10여명은 3일 광주와 전남을 찾아 ‘호남 민심’의 문을 두드렸다.

김 위원장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지 닷새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1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행사에 앞서 그는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시 관계자와 5개구 구청장들을 만나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호남이 4차 혁명을 이끌어갈 글로벌 첨단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두고 있다”며 “우리 노력과 진심은 앞으로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노력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이 자리 함께 한 호남동행 의원들이 광주를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예산지원 및 정책개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의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고, 1단계로 동서통합을 기치를 내걸고 오는 대장정을 시작한다”면서 “시농이 아닌 행동과 법안, 지역현안,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장벽이 높았던 드리워진 동서장벽을 무너뜨리고 화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원장이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윤재욱·이달근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을 ‘제2의 지역구’로 삼은 ‘호남 동행’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 부시장은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서 현안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광주시민도 크게 환영하고 감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역사애국 처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 자치구협의회의장을 맡고 있는 문인 북구청장은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특히 광역시 기초단체가 시·군 보다 열악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와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서구는 마곡동 공군단약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구했다. 남구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북구는 자연재해 피해 지원 제도 개선, 광산구는 생활자원화센터 설치 지원 관련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광역 및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권 국립과대학 설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여순사건 특별법·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 등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22개 시군에서는 지역관광거점도시육성(목포),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여수), 어린이(가죽) 특화 생활SOC건설(나주), 남중권 국립광양소재과학관 건립(광양) 등 40여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호남을 향해 꾸준한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19일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릎 사과’를 한 뒤 2개월여간 특히 행보가 집중되고 있고, 예결위 소속 의원들도 최근 호남권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 예산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보여주기식 행보로는 호남 민심 얻을수 없다”

광주 시민단체 진정성 입증 촉구

대학생진보연합은 피켓시위

국민의힘이 ‘호남 구애’를 위한 서진(西進)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광주 시민단체들은 정작 진정성이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8월19일 국립 5·18 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국회의원 의원들이 5월 관련단체들을 만나 5월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호남민심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5·18 관련 법안을 국민의 힘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8월 ‘5·18 관련 법안도 협조할 것’이라며 무릎 꿇고 사죄하였지만, 지난 3개월간의 행적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발의돼 계류중인 5·18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한다’면서 여지껏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사죄의 쇼나, 예산 행거기의 보여주기식 행보로는 절대 호남민심을 얻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정치적 쇼로 호남민심과 5·18을 우롱하지 말고 약속한대로 당론과 법안 통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도 이날 김 위원장이 광주시의회에 도착하자 “40년 전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의 후에 당신들이 어떻게 이곳 광주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라고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최권일 기자 cki@

세계 최고 수준 AI 탄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솔트룩스 컨소시엄의 대국민 프로젝트

당신의 사투리를 삽니다

누구든 가능합니다

시에게 사투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언어능력 AI 개발
당신의 사투리로 함께 해주세요

모집분야 | 화자 사투리를 들려주세요
전사 사투리를 듣고 입력해주세요
검수 사투리 데이터를 검수해주세요

전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관기관 | 솔트룩스
자문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참여기관 | 전라도 솔트룩스, 디그랩, 도담에스엘
강원도 인피닉, 디큐, 타임소프트
경상도 소리자바, 코아인포메이션
제주도 이스트소프트, 사람과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데이터메이커
충청도 디그랩, 나라저식정보, 엑소텍

지역별 업체 문의처

전라도 솔트룩스 062-233-1335 / kimjh@saltlux.com
강원도 인피닉 02-525-2202 / yy2kim@infiniq.co.kr
경상도 소리자바 070-5086-7315 / sorizava4@sorizava.co.kr

제주도 이스트소프트 070-8850-8334 / bizb2team@estsoft.com
충청도 디그랩 070-5090-7923 / dgraib@dgraib.co.kr
충청도 솔트룩스 02-2193-1600 / saturi@saltlux.com